

무슨 일을 하든  
일에 꼬달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일의 주인돼야

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자신에게 닥쳐 온 고통이나 어려움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여겨 긍정적으로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큰 태풍 속에서 배를 운행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순풍이 불 때의 운행은 쉽게 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이처럼 당장은 폭풍치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만큼 힘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수월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어요.

그러나 순간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든지 너무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다고 흥청망청 다 소비해 버리고, 또 그러다 돈이 안 벌리면 왜 이런가 온통 고심하고 그러니 어느 한 순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관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닥친 일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니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아까도 내가 말했죠. 불사를 하는 사람은 불사의 주인이 되어야 하듯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자신이 그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닥치는 모든 경계의 주인이 되어 대처해 나가 보세요. 그것이 자연 재해든, 가난이든, 병고든,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중심만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이 자신을 망가뜨리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 물질적 중요를 누리다 그것의 혜택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들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부족감을 느낍니다. 제2의 IMF가 올거라는 불안심리도 있고, 경제 파동이후 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파동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 물질적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 사람에게서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도 다 있습니다. 배고프다가 돈을 벌게 되니 허영심과 사치심이 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도 않고 흥청거리며 과소비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지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경제 성장을 했다고 너무 허황된 생활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는 IMF라는 경제난을 맞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악순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물질 성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성장도 물질적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잘사는 나라 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선진국이 되어야 해요. 함께 사는 삶,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이야말로 정신적인 선진나라의 표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서있는 이 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게 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도 둘러보고 주위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부처님께서는 나와 내가 따로 없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서는 나와 나의 구별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겪고 서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나와 상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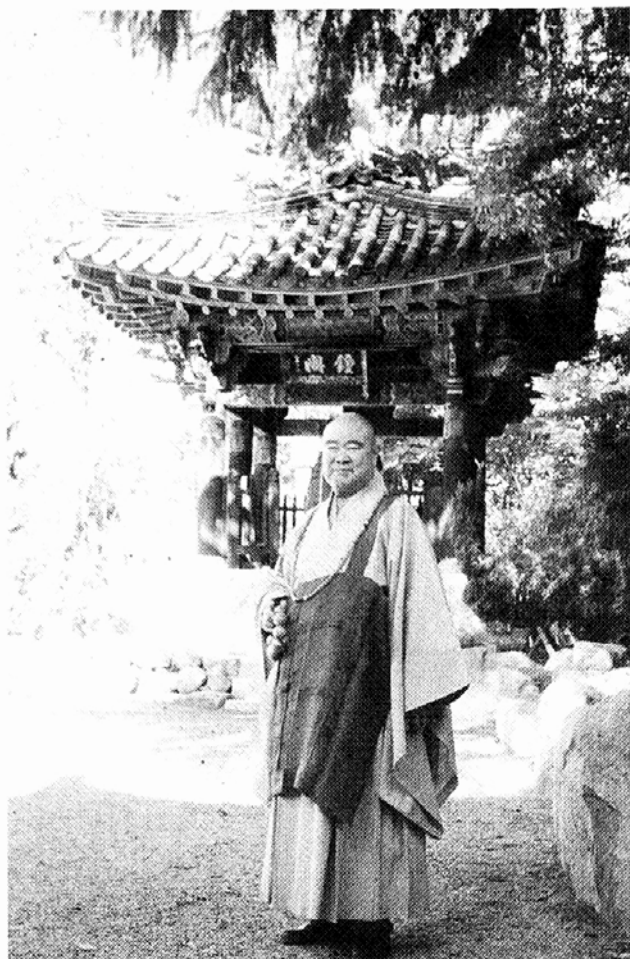
▲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생과 사가 돌이키고 유와 무가 돌이키고 나쁜 것이 돌이키는 법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만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반쪽입니다. 돌이키면서도 돌이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내가 얽혀서 돌이키지만 따로따로 살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통이

부처되는 공부 모두에 다 평등  
삼독에 얽매인 나 푸는게 방생

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살펴봅시다. 심장, 간, 위 등등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한 장기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모든 장기가 다 타들어 가요. 그러면 우리 몸통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면서 또 돌이키는 법입니다. 이 이치만 마음 깊이 새기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 스님께서는 방생회를 만들어 인간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간 방생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방생은 생명을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물고기나 미꾸라지를 일부러 사서 그것을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것으로 방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문제가 그 밖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사서 상류에서 놓아주면 하류에서는 다시 잡아 팔기도 하니 지금 하는 방생은 제대로 된 방생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오히려 물고기 번식을 이종상종으로 괴롭히게 될 뿐이죠.



◇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밝히고 잘 활용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자고 강조하시는 덕명스님.

진치 세 끈을 가지고 얽어 매어 놓은 자기 마음을 풀어 놓은 것. 그것이 올바른 방생이라고 항상 이야기 합니다. 자기의 올바른 길을 찾고 지혜를 키워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상의 방생은 없습니다.

인간방생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루 착한 일 한가지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가지만 하면 그것이 모여 한달이면 30번, 일년이면 365번이 되고 그것이 십년 모이면 엄청난 선행을 쌓게 되고 평생 모이면 자신을 방생하는 지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위한 참다운 일일일인이 생활 전체로 이어지면 그것이 방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생활,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인간 방생 실천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현재의 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 속에서 태어났더라도 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 마음이란 눈을 제대로 알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세계를 더욱 값지게 활용하는 지혜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하 노스님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은 선택된 이미지다. 어떤 것은 잊혀지고 어떤 것은 오래도록 남아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간혹 떠오를 때가 있는 반면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괜히 웃음이 시큰거리는 일들도 있다. 기뻐던 일들도 슬퍼던 일들도 그러나 망각 속에 세월 속에 묻히면 추억일 뿐이다. 해서 인간은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기에 산다. 인간에게 있어 버리는 것이라든가 버리는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아마 우리 내면은 철축같은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에 휩싸여 한 번의 슬픔에서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편리하고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능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늘 잊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간혹 오랜 기억을 유추해 볼 때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간절함 그 이유이라 생각된다.

공부 게으른 학인들엔  
공포의 심우장 목침할배

가 그리울 뿐이다. 그래서 더욱 생각나는 노스님 한 분이 있다. 70년대 중반 통도사에는 경봉(鏡峰), 백안(碧眼), 일암 큰스님을 비롯해 많은 노스님들이 계셨다. 그 중에서 경하(鏡可) 노스님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경하스님은 몸의 반은 전혀 쓸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심우장(尋牛牝)을 지키고 계셨다. 뒷방에 계시면서도 그 많은 학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셨고 풍기 때문에 문밖 출입은 자주 안하셨지만 누구보다 사중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다.

누구는 학인 신분으로 공부시간에 계곡에 가서 먹감도 왔다. 어느 학인은 쓸데없이 산 문술임을 자주 안하셨지만 누구보다 사중 돌아오는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다. 누구는 학인 신분으로 공부시간에 계곡에 가서 먹감도 왔다. 어느 학인은 쓸데없이 산 문술임을 자주 안하셨지만 누구보다 사중 돌아오는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다.

어느날 내게도 잠깐 들르시는 시자스님의 전갈이 왔다. 일단 한번 불러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뜻밖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터라 갑자기 맥이 풀리고 가슴이 뛰었다. 무엇을 잘 못했을까, 시자를 하고 있던 영한스님을 불러 대서 노스님이 화가 나서 부른 것일까, 아니면 며칠 전 시내에 나가서 영화본다고 귀사 시간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별별 생각을 하면서 심우장 문을 두드렸다.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거부죄에 허리 또한 꿇어 세우시는데 "네가 성우 상좌 맞냐?" 하신다. 그렇다고 하자 "네 은사가 여기서 공부할 때 연비까지 했다. 그만큼 독하게 공부했는데 요새 왜 경반 학인을 끌고다니는 소리가 시

원찮냐. 그리고 니 글 읽는 소리는 전혀 안들리는데 어찌된 일이나. 공금해서 불렀다. 어디 아픈게냐?"라고 이상하게 물으시는 것이었다. 내 눈은 스님의 오른 손과 그에 근접해있는 목침(木枕)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언제 내게로 날아올지 몰라 내내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터였다. 불러가는 학인들은 먼저 목침경험을 하고 온 스님들에게 조언을 들은 듯했는데 절대로 날아오는 목침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하면 스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어서 온전히 그 방을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내심 여차하면 피할 각오로 내 눈은 스님의 손과 목침에 머물렀지만 스님께서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내 건장을 물으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접시에 놓여있던 빨간 홍시를 내 앞으로 밀어 놓으시는 게 아닌가. 몸이 불편했었다는 구차한 변명이 끝나자 이내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 같이 "지붕이 성골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밤마



그림·문병성

가 그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라 하신다. 부처님 법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인연인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양말 두켤레와 홍시를 손에 쥐어주시고는 심우장 문밖을 허락하셨다.

물론 나이가 여러 귀결에 바꾼 덕분이었지만 목침세례를 무사히 넘겼던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례적이었던 것이다. 경반 학인의 처소인 황화궁(皇華宮)과 심우장의 거리는 오십여 미터쯤 되는데 그 거리를 독경소리를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봉 노스님께서도 큰절에 내려오시면 자주 심우장을 찾아 병상의 스님을 위로하고 가셨다.

예전의 큰스님들은 법력으로 후학들을 경책하셨는데, 그 법력 앞에는 그 어떤 논리도 주장도 소용없고 사죄가 작용되는 것은 한도 용납이 안되었다. 어른이 없다는 말보다는 어른을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는 요즘 풍토에 잔잔히 옛기억들을 더듬어 보았을 뿐이다.

■ 봉은사 포교실장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성경 보현행원공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차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전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노·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동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 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天壽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해박사)

■ 흥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